

제주 곶 음식
:
서울 철거민 삶
:
호남 모정문화
:
:



칠채를 치면서 오방진을 쌓는 모습(부천종리풍물)

군산시 대야면 탐동마을 모정

현장 숨결로 담아낸 다채로운 민속문화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지역 민속조사의 결과물인 '2024년 국립민속박물관 권역별 자유주제 민속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박물관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전승되는 전통문화를 기록해 널리 알리고, 민속 연구 활성화와 연구자 지원을 위해 매년 '자유주제 민속조사 과제'를 공모해왔다. 연구자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민속문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으며, 올해는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해 다섯 권의 보고서로 묶었다.

제주 곶판에서 음식은 곶의 중심에 놓인다. 심방(무당)은 잡신까지 불러내 곶상에 음식을 차려 바치고, 참여자들은 저마다 음식을 준비해 서로 나눈다. 제주 해녀곶을 처음 목격한 연구자의 기억 속 가장 깊이 자리한 것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잘 먹여 보내려는 곶판의 음식과 이를 통해 전해지는 열거어진 마음이었다.

서울 변두리 산비탈 집과 골목은 수십 층아파트촌으로 바뀌었다. 과거 개발로 밀려났던 철거민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찾아야 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렇듯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 '2024 권역별 자유주제 민속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 곶판 음식부터 호남 지역의 초가지붕 솟터 모정(茅亭) 문화까지. 권역별 생활문화의 단면을 담아낸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다섯 주제로 엮은 전국 곳곳의 현장 기록

들이 담겼다. 호남권의 모정문화, 영남권 달성의 농악, 경기지역이 중심이 된 길군악체까지 각 권역별 민속과 전통문화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첫 번째 권 '호남문화권의 모정문화와 장원레 술책이' (송화섭)는 조선 후기 농촌 마을의 중심 공간이었던 모정(茅亭)을 다뤘다. 모정은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는 공론장이자 휴식·놀이 공간이었으며, 농경의례가 펼쳐지던 장소였다. 그러나 현대식 마을회관과 농업 기계화로 점차 사라져갔다. 연구자는 모정문화의 마지막 세대를 직접 찾아 이야기를 기록하

며 모정의 역사적 내력과 가치를 담았다.

두 번째 권 '달성의 농악-달성군 다사지역을 중심으로' (정모희)는 대구 달성군 다사지역에서 전승되는 농악을 조망했다.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의 생활양식이 배어 있는 가락과 판제, 진법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을 기록했으며, 지역민들의 삶과 의식까지 함께 탐구했다.

세 번째 권 '먹는 것으로 들여다보는 제주 큰굿' (김영희·김시연)은 제주 곶에서 음식을 신과 인간의 매개로 바라봤다. 연구자들은 1년간 80회 가량 곶판에 참여하며 신과 곶판의 참가자들의 먹고 먹이는 의례와 행위를 살

다. 기존 연구가 곶의 형식과 절차에 집중했다면, 이번 보고서는 음식이라는 맥락으로 제주 곶을 이해하려 했다.

네 번째 권 '길군악체계의 분포와 지역적 성격' (시지은)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강원 일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길군의 장단을 분석했다. 길을 걸으며 한 장 단에 징을 일곱 번 치는 '길군악체계'는 전국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된 길굿이다. 보고서는 전승 지역별 차이와 용어, 연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렸다. 특히 각 지역 보존회의 사례와 연행 장면 사진도 담아 길군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 권 '서울의 철거 이주민 정착지-상계동 양지마을·희망촌 도시민속지' (김태우·류영희)는 서울 상계동 철거민 집단 이주지의 생활사를 다뤘다. 낙원시장 철거와 청계천 복개공사로 밀려난 주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의 형성과 공동체 문화, 다시 재개발로 내몰리는 현실을 담았다. 이주와 정착, 생업과 종교, 생활상의 면면이 기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박물관 누리집(www.nf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그래도 춤을 추세요=이서수

저자

이 소설집에서 이서수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업무는 과중하고, 상사는 불합리한 지적을 일삼는다. 잊을 만하면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와의 관계도 녹록지 않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상사에게 부당함을 따져 묻는 대신 그저 회사를 잠시 탈출해 근처 도서관에 몸을 숨기거나, 노동하러 하지 않는 가족을 비난하기보다는 생활비를 주면서 작은 생색을 낸다. 그리고 겨우겨우 하루를 보내는 중에 뜻밖의 돌파구를 발견하기도 한다.

/문학동네·1만7천원



▲흙의 숨=유경수 저자

저자

흙의 숨결을 느끼고 기록하는 생태학자가 들려주는, 지구 곳곳의 흙과 거기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계 각지의 여러 문화권에서 땅과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살피면서 오늘날 인류의 농경 문화, 토양 생물학과 화학, 육지 경관의 변화, 기후 변화,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을 다룬다. 무덤과 밭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진도의 풍경, 히말라야 화전농의 지혜부터 극지에 '침입'한 지렁이의 맹렬한 활동까지. 부지런히 밭로 뛰며 채집한 지구 곳곳 흙 속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김영사·2만2천원



▲나는 달로 출근한다=정민섭

저자

이 책의 저자는 역사적인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겪은 이야기를 보고서처럼 건조하게 풀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열 명도 채 안 되는 달 과학자가 된 사연, 세 아이의 아빠이자 남편으로 연구와 육아를 병행한 시간, 풀캠 개발팀에서 일하면서 느낀 과학자와 공학자의 차이와 협업의 소중함, 풀캠에 흘러 들어간 컷을 때문에 우주로 간 저자의 DNA 등 그 안에 숨은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덧 달 탐사선을 가진 나라의 달 과학자가 된 저자가 들려주는 우리나라의 지구 밖 첫 여정, 다누리의 개발 과정을 만나보자. /플루토·1만8천원



▲아장아장 사계절=강

효선 저자

사계절의 산책을 그리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이의 성장을 담아낸 그림책이 출간됐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유니버셜식 구성 속에서 매일 변하는 자연과 계절을 만끽하는 아이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꽃잎을 만지고, 빗물에 비친 풍경을 보고, 낙엽이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차가운 눈을 손으로 꼭 쥐어 보는 순간들이 아이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펼쳐진다.

/창비·1만6천800원

자유분방한 언어로 그려낸 사랑과 저항



'도시락이 돌아오는 시간' 안창섭 세 번째 시집 출간

소설과 시를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이어온 안창섭 시인의 시집 '도시락이 돌아오는 시간' (작가마을)이 '작가마을 시인선' 72번째 책으로 나왔다.

안 시인은 경남 진해를 기반으로 시, 시조,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작품을 발표해온 문인이자, 해군 출신으로 평생 진해에 뿌리내린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또 100회가 넘는 마라톤 완주 기록을 가진 생활마라토너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시집은 시조집을 포함해 세 번째 시집으로, 시인의 재기발랄한 성격을 그대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긍정적이고 활발한 그의 기질처럼 작품은 특정한 주제에 갇히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흘러



리간다. 풋사과 같은 순수함 속에 주변의 이야기를 녹여내다가도, 불현듯 드러나는 내면의 고백과 세속을 찌르는 변독임

이 더해져 언어의 긴장을 살린다. 단순한 언어유희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그 언어가 사랑, 저항, 자의식이라는 주제와 맞닿아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화자를 달리하며 드러나는 저항의 목소리, 세상을 향해 던지는 간결한 언어가 읽는

맛을 더한다.

김정수 시인은 "안창섭 시인의 시집 '도시락이 돌아오는 시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라며 "개인사적 정서를 넘어 불합리한 현실과 인간의 허위를 비판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언어와 형식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한편 안창섭 시인은 2015년 '월간문학' 시조 등단을 시작으로 2019년 계간 '창작21'에 시, 2021년 계간 '소설마하'에 소설을 발표하며 문학 전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성호문학 본상(2021)과 아르고 발표지원(2022)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시집 '내일처럼 비가 내리면', 시조집 '유모차를 타고 가는 아이나비'가 있다.

/최명진 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